

21세기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전략

1. 머리말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기(New-Millennium)의 출발점으로서 21세기의 시작이자 ‘문화의 세기’로 지식정보 사회·글로벌화·개방화·시민사회의 성숙 등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각국과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와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산업이 환경 및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성장산업으로써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인의 문화생활에 변천을 가구별 문화생활 지출에 대한 가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1963년 10%에서 1985년 10.3%로, 그리고 1994년에는 19.1%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고도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 자동차의 보급증대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화생활을 하고 관광을 즐기는 것은 더 이상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지역개발계획팀

1) 정태환 외,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1995.

기본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는 지난 1998년 '새문화관광정책'과 1999년에는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문화생활과 관광활동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997년 충남장기발전비전 21에서 '21세기를 향한 정신문화창조'와 '도전적 관광자원의 입체적 개발'에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출발단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충남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지난 1993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은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의 확충에만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평가도 이들의 시설수와 사업 투자실적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관광에서 중요한 체험의 질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관련된 시설

공간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발 뿐 만이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질적인 측면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2.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파급 효과

1)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정의와 의의

(1) 문화관광자원의 정의와 분류

관광은 '문화행동', '문화접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일상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접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화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²⁾ 문화관광은 관광객의 관광욕구 대상을 특정 지역에서 생성되어 전송되어 온 독특한 생활방식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문화관광에 대한 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사전적 의미로서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어 있거나 스며 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WTO)의 연구논문에서는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탐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념비 방문, 자연 민속 예술 여행연구,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

2) 손대현,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일신사, 1992.

3) 김정옥, 관광자원관리론, 대왕사, 1997.

4) 안중윤 편저, 관광용어사전, 범문사, 1985.

에 의한 인간들의 이동이고, 광의의 문화관광은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⁵⁾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문화관광이란 결국 타 국이나 타 지역에서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을 접하여 체험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은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도 현대와 함께 살아나가는 지속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류의 삶의 현장과 그 역사와 흔적 그리고 현재의 모습 모두를 의미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문화관광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요건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 자원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박물관 등이 있고, 둘째, 법률적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전래되고 계승 발전해 오는 전통민속관광자원으로 제의, 축제, 유물, 민속, 풍속, 토속신앙, 역사의 현장 등이 있고, 셋째, 현대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가치가 높고 관광의 대상이 되는 현대건축물, 미술관, 축제, 각종 행사와 이벤트,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이 있다.⁶⁾

(2) 문화관광자원 가치와 개발방향

오늘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멀진, 가깝건 혹은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문화의 교류가 관광이라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관광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⁷⁾

문화관광은 중요한 관광산업중의 하나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갖는 가치와 의의는,

첫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다.

셋째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예술을 진흥시킨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6) 전고필, “광주 전남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다. 문화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와 예술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문화관광의 대상이 되는 문화자원이 관광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관광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자원, 예컨대 문화축제 및 이벤트 기획, 참신한 공연 및 전시,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 전통문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 전통 생활문화, 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 등을 통하여 관광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로 문화자원을 관광하려는 문화관광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관광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욕구와 동기, 역사문화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관광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로 문화관광 수요와 문화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체계, 홍보 및 광

고, 정보네트워크, 저렴한 가격, 친절한 관광서비스 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로 문화관광은 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오락, 인접 관광시설 등이 갖추어 있을 때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다.⁸⁾

이러한 개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방향은,

① 관광지의 성격과 기능,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수요를 고려한 목적별 코스 상품의 개발

② 지역의 향토성, 역사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 관광상품의 개발

③ 고유한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매력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전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관광이벤트 상품으로 개발

④ 민예품, 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중 상품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고급화 다양화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⁹⁾

2) 문화관광개발의 지역파급효과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게 관광 대상지의 개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새로운 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물리적 변화 즉 경제적 영향과 개발 이후에 외래객이 유

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체육 관광의 연계방안, 1995.

9)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입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물리적 변화 즉,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대별된다.

관광에 대한 파급효과에서 다루어진 경제적 영향의 일반적인 내용 즉, 긍정적인 것으로서 외화 획득, 고용창출, 소득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과 부정적인 것으로서 외화유출, 통화팽창유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유발, 3차산업의 확대로 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의 불안정 유발, 외지자본의 의존에 의한 대외종속의 우려 등의 결과는 관광의 유형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관광개발의 대상이 자연자원이든 문화자원이든간에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인 건축양식과 도시구조 등이 변화될 수 밖에 없으며 관광객의 관광활동 중에 접하는 지역주민과의 교류에서 파생되는 관광객의 이질적인 언행은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고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나아가서 지역의 건축문화 및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과 같이 토착문화와 사회보존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적 효과, 정보교환촉진, 상호 이해증진, 사회·인종·종교적 장벽 타파, 새로운 사상의 도입, 문화교류,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향토애

고취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화적 갈등, 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변질, 퇴폐풍조 고조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됨으로 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가지 측면이 잘 고려된 문화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의 환경적 파급효과는 관광지의 개발여부, 관광객수와 관광목적 등에 따라 그 파급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관광객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환경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부구조의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수준의 개선과 부정적인 측면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 교통혼잡 등이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¹⁰⁾

이상에서 논의한 문화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체육 관광의 연계방안, 1995.

〈표 1〉 문화관광의 지역파급효과

구 분	긍 정 적 측 면	부 정 적 측 면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창출(외화획득, 국제수지 또는 지방재정에 기여) • 고용유발(실업해소) • 경제기반 강화(1차산업 중심의 취약성 극복) • 경제편의 증대(교통통신, 사회간접투자이익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자가 및 생활물 등 물가 상승) • 외부의존성 증대(소득유출, 외부자 본비용 증가) • 타산업 고용불안정성 야기 • 전시효과(사치심, 낭비욕 조장)
사회문화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문화의 교육적 효과 • 문화교류와 정보 교환의 촉진 • 지역간 상호이해 증진 •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변질(문화의 상품화) • 지역거주권 혼란(가족관 파괴) • 불건전 지역풍토 조장(범죄, 도박, 매춘 등) • 관광객과 지역주민간 위화감
환경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생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공해) • 동 식물의 생태변화 • 쓰레기 처리문제 • 교통혼잡

자료 : 김사헌, 관광경제학 신론, 일신사,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체육 관광의 연계방안, 1995에서 재 정리

3.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실태와 과제

충남의 도시, 농촌, 어촌은 모두 그 나름대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한 정보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의 발굴·보존·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현황과 이용

실태, 문화관광자원 관련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남 문화관광자원 개발실태

(1) 일반적 관광자원과 시설현황

충남의 주요 관광자원은 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체육시설, 관광농원, 온천,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자원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전국에 국립공원 20개소, 도립공원 20개소, 군립공원 27개소에 총 면적 7,442,029km²에 이른다. 충남권에는 2개소의 국립공원과 3개소의 도립공원, 1개소의 군립공원 등 6개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전국 자연공원 면적의 6.4%에 해당하는 483,774km²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¹¹⁾

충남도내 관광지 지정수는 1998년 현재 총 21개소에 12,214km²로 전국면적 180,034km²의 6.6%에 해당하며, 다양한 자원유형별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문화관광자원형 관광지는 구드래, 태조산, 곰나루, 각원사, 마곡사, 공주문화관광단지 등 6개소가 있다. 관광특구는 1997년에 지정되어 전국 17개소 중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2개소 6,23km²의 면적이 지

정되어 있다.

충청남도내 온천지구는 1998년 현재 11개소이고, 골프장은 5개소이다. 관광농원은 1996년에 전국 332개소 중 충남도에는 51개 지구와 민박마을 18개소가 구성되어 있다.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은 1997년에 충남권내에는 자연휴양림 8개소, 삼림욕장 4개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은 38개소이다.

충남도에서 관광숙박시설은 1998년 현재 관광호텔이 12개소, 가족호텔 1개소, 콘도 3개소인데, 이들의 분포를 보면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아산지역에 7개 호텔이 밀집되어 있고, 예산 1개, 공주 1개, 논산 2개와 천안에 가족호텔 1개소가 있으며, 이외에도 도고 온천지역에 콘도미니엄이 3개가 있다.

〈표 2〉 충남의 지정 관광지 중 문화관광지 현황

관광지명	소재지	관광지 지정		주요 개발내용
		지정연도	면적(km ²)	
구 드 래	부여 구교	80. 1. 24	148,515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곰 나 루	당진 유점	87. 7. 24	139,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태 조 산	천안 유학	86. 7. 24	535,700	청소년 수련시설
각 원 사	장안 현서	90. 4. 19	82,294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마 곡 사	공주 사곡	93. 11. 9	126,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공 주 문 화	공주유전문화단지	96. 10. 24	1,330,000	백제문화 중심 관광지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8.

11)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7.

충남지역의 여행사는 1998년 현재 총 237개소로 국외여행사가 60개소, 국내여행사가 176개소, 일반여행사가 1개소이다. 관광객 휴양시설로서 1998년 현재 전문 휴양업이 1개소, 편의 시설업이 2개소이다.¹²⁾

(2) 문화재 현황

충남지방에 소재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1998년에 총 184점으로 국보 28점, 보물 84점, 사적 34점, 사적 및 명승 1점, 천연기념물 12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 중요민속자료 19점이다. 또 충청남도지정 문화재는 총 291점인데 유형문화재가 127점, 기념물이 130점, 무형문화재가 22점, 민속자료가 12점이다. 문화재 자료는 총 273점인데 유형문화재가 231점, 기념물이 40점, 민속자료가 2점이다.¹³⁾

지역별로 문화재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부여군이 120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도 115점을 차지한다. 천안,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등이 각각 40점 이상이며, 보령, 금산, 서천, 홍성 등에도 30점 이상이 분포하고 있어 충남 전역에 걸쳐 산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충남에서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중에서 사찰의 경우는 동학사, 갑사, 마곡사, 수덕사, 신원사, 무량사 등 76개소가 있으며, 천주교는 솔피성지가 있다.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 유형별, 시·군별 분포내용은 [그림 1]과 같다.

(3) 향토문화축제와 민속놀이 현황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백제문화제를 제외하면 동화제, 풍어제 등 마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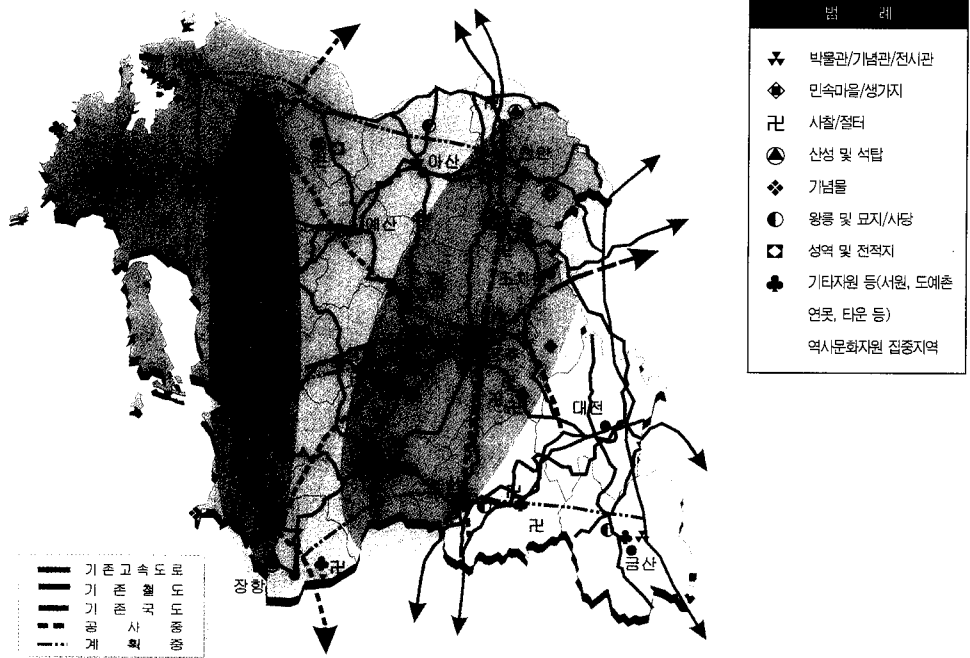
〈표 3〉 충남도내 시·군별 지정문화재 현황

구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원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국가지정 문화재	184	11	36	7	13	12	11	-	4	3	36	8	10	9	12	8
도지정 문화재	291	14	51	13	13	12	39	2	10	9	49	13	9	16	21	10
도지정 무형문화재	273	25	28	15	22	18	27	3	20	9	33	12	8	15	27	7
합계	748	50	115	35	48	42	76	5	34	21	120	33	27	39	61	25
비율(%)	1000	67	154	47	64	56	102	07	45	28	160	44	36	52	80	33

자료 : 충청남도, 문화재목록, 1998.

12)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8.

13) 충청남도, 문화재목록, 1997.



자료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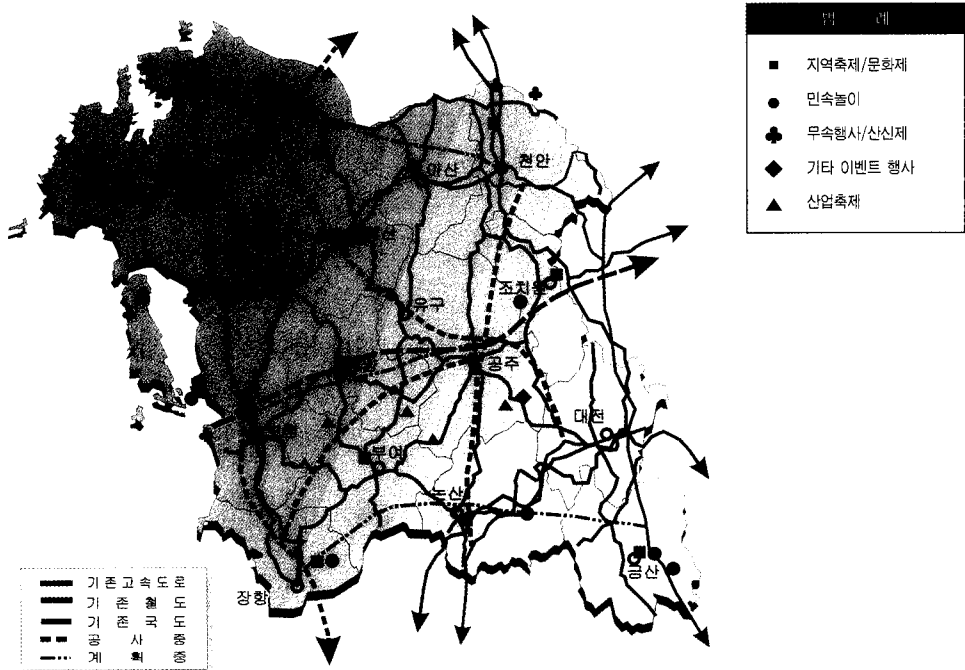
[그림 1] 문화관광자원 유형별 지역 분포도

위의 원시적인 축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서자 도내 전체축제의 과반수인 15개 축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전 시군이 1개의 대표적 축제를 갖게 되었다. 1995년에 조사된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모두 22 회였으나 1998년은 40회로 증가하였다. 이들 축제의 개최시기는 4월과 9월~10월에 집중되어 있다.

충남의 축제행사를 개최 목적별 구분에 의하여 개최되는 축제현황을 보면, 주민화합축제는 천안

삼거리문화제, 백제문화제, 만세보령문화제, 설화예술제, 서산문화제, 연산백중놀이, 놀피향토제, 도원문화제, 저산문화제, 칠갑문화제, 홍성군민의날 대축제, 매현문화제, 태안문화제 등이 있다. 산업축제로는 성환배추제, 입장거봉포도축제, 금산인삼제, 예산능금축제 등과 관광축제로는 온양아산문화제와 동학사봄꽃축제, 특수목적축제로는 만해제와 황도봉기풍어제 등이 있다.

충남지역 축제의 시·군별 분포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자료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그림 2) 향토문화축제의 유형별 지역 분포도

(4)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현황

충남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 토속음식은 다종다양하며, 이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들 중에는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보다는 지역특산물, 농수산물특산물, 토속음식 등이 많으며, 가공이 된 것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충남의 지역특산물은 대부분이 민속주, 가공농수산물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쌀, 버

섯, 과일, 양념채소, 민물장어, 대하, 꽃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기념품과 특산물의 판매장소는 생산지 직판, 생산지의 시내일원, 전국 판매 등과 이들을 모두 혼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념품과 특산물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그 판매장소가 결정되어지며 특히, 상품의 질과 운송의 편리성에 따라서 판매장소가 결정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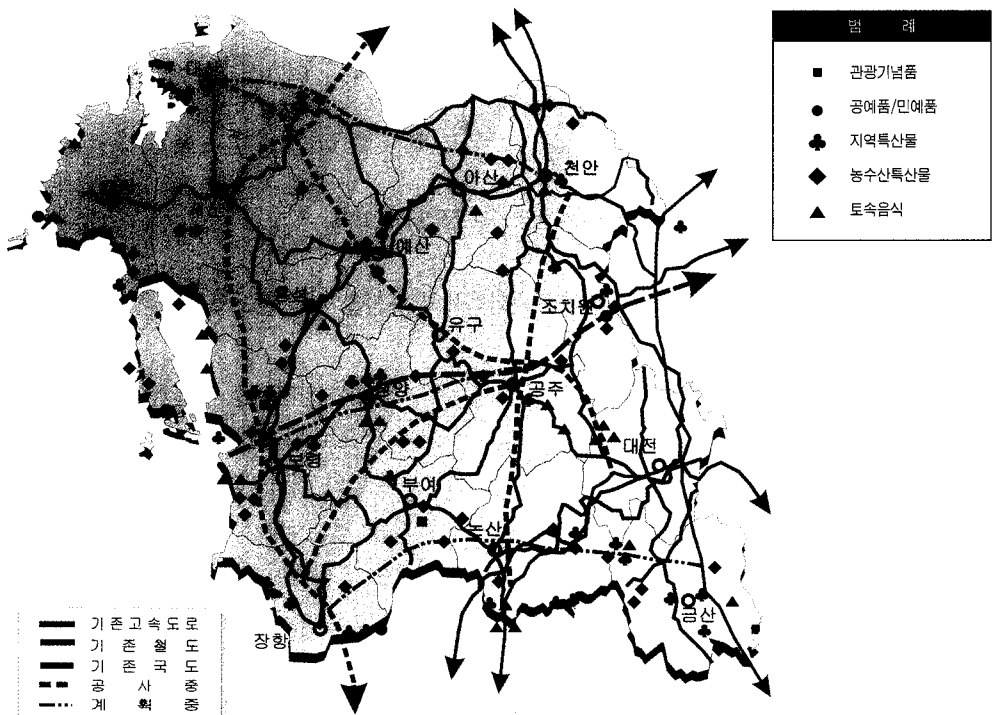
충남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 및 특산물 중 농수산물과 토속음식 등 상품의 포장과 운송

이 불편한 것들은 생산지와 생산지의 시내일원에
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과 운송이 가능한
것들은 생산지와 시내일원,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충남지역 기념품과 특산
물의 시 군별 분포내용은 [그림 3]과 같다.

(5) 문화관광코스 개발현황

문화관광코스로는 일정별 관광코스와 백제문
화권의 시간별 관광코스가 있다. 특히, 일정 시간
별 관광코스는 문화관광자원과 모두 연계되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들 일정별 관광코스와 관광권
역별 관광코스에서는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을 이
동이 가능한 시간별로 연계해 하고 있을 뿐 자원
특성이 가지고 있는 상호간의 연계성이나 방문객
의 방문목적은 거의 고려치 않고 있다. 또한 관
광객의 유형이나 이용교통편은 관광코스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반영한 관광코스의 개
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문화관광자원과 관
련된 관광코스상품의 개발은 이러한 종합적인 측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그림 3] 기념품 및 특산물 유형별 지역 분포도

〈표 4〉 일정별 충남 문화관광코스 현황

관광코스 유형		관	관	코	스
1월1일 코 스	국립공원	대전 > 계룡(대둔산) > 대전			
	인 심	대전 > 금강(인삼다운) > 대전			
당 일 코 스	백제문화	천안(대전) > 공주(백제문화유적) > 부여(백제문화유적) > 천안(대전)			
	삼 역	천안(대전) > 독립기념관 > 대조산대좌불 > 현충사 > 삼교호 > 온양민속박물관 > 천안(대전)			
	한양(기념관)	천안 > 백제(한양) > 공주 > 천안 > 계룡(한양) > 천안			
2월2일 코 스	백제문화	천안(대전) > 계룡산(문화사) > 공주(백제문화유적) > 부여(백제) > 부여(백제문화유적) > 공주시 > 화강골재목 > 성주사지 > 대천(무장포) > 천안(대전)			
	삼역 > 화강	천안(대전) > 독립기념관 > 대조산대좌불 > 현충사 > 삼교호 > 온양민속박물관 > 신정호 > (온양도교유적) > 무성고굴 > 충의사 > 수덕사 > 덕산온천 > 천안(대전)			
	서해안	천안(대전) > 계룡산(문화사) > 공주(백제문화유적) > 부여(백제) > 부여(백제문화유적) > 공주시 > 화강골재목 > 성주사지 > 대천(무장포) > 천안(대전)			
	한양(기념관)	천안 > 독립기념관 > 대전(한양) > 공주 > 천안 > 계룡(한양) > 천안 > 공주시 > 온양(한양) > 삼교호 > 현충사 > 천안			
2월3일 코 스	1 코 스	천안(대전) > 공주(백제문화유적) > 부여(백제문화유적) > 부여(백제) > 천안도사터 > 금강하구둑 > 부창포해수욕장 > 남포병조제 > 대천해수욕장 > 수덕사 > 충의사 > (도교온천유적) > 신정호 > 온양민속박물관 > 현충사 > 대조산대좌불 > 천안(대전)			
	2 코 스	천안(대전) > 독립기념관 > 유관순사우 > 대조산대좌불 > 현충사 > 온양민속박물관 > 신정호 > (온양수박) > 삼교호 > 대조병조제 > 대산공단 > 대에삼존불 > 해미읍성 > 수덕사 > 충의사 > (덕산온천유적) > 절간전 > 공주(백제문화유적) > 논산 > 관록사 > 천안(대전)			
	3 코 스	대전 > 논산관측사 > 부여(백제문화유적) > 계룡산(감사) > 공주(백제문화유적) > (공주수박) > 마곡사 > 외암민속박물관 > 온양민속박물관 > 현충사 > 삼교호 > 신정호 > (온양수박) > 독립기념관 > 금강인삼다운 > 절벽벽화 > 서대산 > 대전			
	4 코 스	천안 > 삼교호 > 대조병조제 > 대산공단 > 태안해안국립공원 > (서산수박) > 해미읍성 > 대에삼존불 > 대전(무장포) > (부여수박) > 대전(한양) > 유성온천 > 천안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8.

〈표 5〉 시간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 현황

시간별	관 광 코 스
1 시간	공주터미널 - (5분) - 무령왕릉(30분) - (5분) - 공산성(30분) - (5분) - 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 - (5분) - 궁남지(20분) - (5분) - 정림사지(15분) - (5분) - 낙화암, 구드레(15분) - (5분) - 부여터미널
2 시간	논산터미널 - (5분) - 관촉사(30분) - (5분) - 탈정저수지(20분) - (10분) - 논산터미널 공주터미널 - (5분) - 무령왕릉(30분) - (5분) - 곰나루관광지(20분) - (5분) - 공산성(30분) - (5분) - 국립공주박물관(30분) - (5분) - 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 - (5분) - 부여박물관(60분) - (5분) - 능산리고분군(40분) - (5분) - 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 - (5분) - 관촉사(30분) - (20분) - 계백장군전적지(20분) - (10분) - 돈암서원(20 분) - (15분) - 논산터미널
3 시간	공주터미널 - (5분) - 무령왕릉(30분) - (5분) - 국립공주박물관(30분) - (30분) - 파곡사(40 분) - (35분) - 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 - (5분) - 부여박물관(120분) - (10분) - 낙화암(10분) - (20분/유림선) - 구드레 (20분) - (5분) - 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 - (5분) - 관촉사(30분) - (35분) - 대둔산(60분) - (40분) - 논산터미널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8.

2)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이용실태

(1) 충남 관광행태 분석

충남 관광객의 여행목적은 1997년 전국조사의 경우에 당일관광시 자연/명승지 및 풍경관람(32.4%), 유흥/오락(24.9%), 낚시(9.9%),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7.8%), 온천휴양(7.0%), 등산/캠핑/하이킹(6.1%), 기타(11.9%), 숙박관광시 자연/명승지 및 풍경관람(30.8%), 유흥/오락

(18.7%), 수영/해수욕(11.9%),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9.1%), 등산/캠핑/하이킹(7.5%), 기타(22.1%)로 나타났다.¹⁴⁾ 충남에서는 휴양/휴식활동(28.6%), 자연경관감상활동(28.0%), 역사문화관광활동(23.8%), 각종 해양/수변관광활동(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충남은 역사문화 관광활동이 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표 6〉과 같다.

14) 한국관광공사, 전국민여행동태조사, 1998.

〈표 6〉 충남 문화관광자원 이용성향

변수명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이용 목적 (복수응답)	자연경관 감상활동	233	28.0
	문화관광활동	198	23.8
	가정 스포츠활동	13	1.6
	각종 해양수변관광활동	108	13.8
	휴양 휴식활동	238	28.6
	특산물 기념품 구입 등	17	2.0
	기타	25	3.0
	계	832	100.0

자료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2) 충남의 지역별 문화관광자원 이용성향

충남의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문화관광자원이 양호하여 선택한 관광지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천안·공주·아산·부여 등

이었다. 그리고 40% 이상인 지역도 서산·논산·금산·연기·홍성·예산 등으로 나타나 충남의 전지역에서 문화자원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문화관광자원의 양호에 의한 관광지 선택 영향요인

(단위 : %)

구분	매우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안함	매우중요안함	계
천안	37.5	20.8	25.0	8.3	8.3	100.0
공주	31.1	37.7	15.6	15.6	-	100.0
보령	6.8	13.6	34.1	27.3	18.2	100.0
아산	13.5	40.7	37.3	8.5	-	100.0
서산	12.0	28.0	40.0	16.0	4.0	100.0
논산	7.1	35.7	39.3	10.7	7.1	100.0
금산	13.3	33.3	43.3	10.0	-	100.0
연기	5.6	38.9	11.1	11.1	33.3	100.0
부여	45.0	33.3	16.7	5.0	-	100.0
서천	8.0	8.0	20.0	32.0	32.0	100.0

구 분	매우중요함	중요함	보 통	중요안함	매우중요안함	계
청 양	103	231	359	282	25	1000
홍 성	-	480	320	80	120	1000
예 산	128	333	308	128	103	1000
태 안	24	143	381	262	190	1000
당 진	-	87	565	174	174	1000

$\chi^2 = 191.902$ df = 56 P = 0.001 n = 526

3) 충남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련 계획

(1)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

전국차원의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1989년)에서는 전국을 5대 관광권으로 나누고 충남을 충청관광권역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중 충남지역은 공주·부여권과 태안해안권의 2개 관광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주 부여권 개발계획은 백제문화유적의 중심도시로 백제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공주와 부여를 문화재 보전 및 스포츠, 야영시설 등을 확충하여 국제적 문화관광의 휴양지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¹⁵⁾

(2) 관광진흥 10개년계획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화패턴에 맞추어 새로운 관광진흥 정책을 위하여 「관광진흥 10개년계획 : 세부추진계획」(1997년)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중점과제인 세부추진계획에는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컨벤션시설 건립 및 컨벤션도시 육성, 국민휴양시설 획기적 확충, 관광 안내시스템의 완비, 출입국 및 교통서비스의 개선, 쇼핑관광의 활성화, 국민의 건전관광의식제고 등을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정과제의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해외마케팅 활동강화, 지역관광 선진화, 복지관광 실현, 관광업종별 경쟁력 제고, 특성있는 관광상품 개발,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등이 있는데, 이중에 특성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에는 각 지역 문화예술의 관광상품화를 포함하고 있다.¹⁶⁾

15)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16)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 10개년계획:세부추진계획, 1997.

(3)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21세기 세계관광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고유한 한국문화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1999년)을 수립하였다.

이는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개발 방식을 도모하고,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한시적 전략계획으로 문화관광권 및 문화관광벨트, 문화관광거점지역, 특화관광사업 등을 선정하고 있다. 7대 문화관광권에서 충남은 충청권에 포함되어 '백제문화와 내륙휴양'이라는 주제로 백제문화관광벨트와 온천휴양문화관광벨트를 설정하고, 문화관광거점지역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을 선정하며, 중점추진 특화관광사업은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백제문화제 국제화, 보령머드축제 국제화, 이충무공 역사관광 테마파크 건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⁷⁾

(4) 공주·부여권/태안해안권 관광개발기본계획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기존 1993년의 계획을 1996년 수정하여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계획으로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개발목표를 지역 특성의 관광개발 특화 유도,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특화상품의 개발과 문화관광 개

발 촉진, 환경보전적 개발 유도, 관광기간 연계체계 구축, 여가 행태 변화추세에 대비한 능동적 관광전략 수립, 지역의 균형개발 및 관광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에 두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거점관광지 및 관광지역을 설정하고, 단위 지역별로 관광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주 부여권에는 천안, 대전, 공주 등 3개의 거점관광지와 관광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충남도내 관광지구는 1996년 현재 총 26개 지구로 이중 공주 부여권내가 16개 지구로 이중 13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강당리, 운주산성, 탑정저수지 등 3개소가 신규관광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며, 1997년에 개삼터 인삼관광지를 신규 관광지구로 추가해 총 17개소의 관광지구를 계획하고 있다.(표 8)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은 역시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성의 관광개발 특화 유도,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특화상품의 개발과 해안관광 개발 촉진, 환경보전적 개발 유도, 관광기간 연계체계 구축, 여가 행태 변화추세에 대비한 능동적 관광전략 수립, 지역의 균형개발 및 관광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을 개발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서산, 보령 등 2개의 거점관광지와 관광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태안해안권내 13개 지구중 7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원산도·난지도·춘장대 3개

17)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1999.

〈표 8〉 공주 부여권 관광지구 개발계획

구분	지 구 명		부지면적(㎡)	개 발 유 형	시설비(백만원)	소재지
기 존 개 획 (92 년 ~ 96 년)	합 계		8,688	8개지구	153,700	-
	소 계		6,699	13개지구	143,800	-
	기존관광 지구정비 보완계획	구 두 배	0,149	역사문화형	900	부여군
		신 청 호	0,270	호반관광형	7,682	아산시
		태 조 산	0,331	관광및 휴양형	1,500	천안시
		세당저수지	0,186	수변위락형	12,500	세원군
		곰 나 루	0,139	수변위락형	1,500	공주시
		음면저수지	0,267	수변위락형	1,500	천안시
		자 원 사	0,062	역사문화형	8,300	천안시
		마 산 운환	1,861	관광및 휴양형	400,731	아산시
		마 곡 사	0,126	역사문화형	32,000	공주시
		천안 운환	1,064	관광및 휴양형	493,580	천안시
		대곡 운환	0,810	관광및 휴양형	172,500	공주시
		도립 운환	0,144	관광및 휴양형	72,643	천안군
		공주 문화	1,330	역사문화형	182,326	공주시
		관 광 지				
	소 계		1,949	3개지구	60,920	-
추 가	신규관광	운주 산성	0,589	역사문화형	18,620	연기군
	지 구	강 당 리	0,992	역사문화형	22,500	아산시
	개발계획	담정저수지	0,368	수변위락형	19,800	논산시
	소 계		0,172	1개지구	25,800	-
추 가	신규관광	개 삼 터				
	지 구	인삼관광지	0,172	관광및 휴양형	25,800	금산군
	개발계획					

자료 : 충청남도,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계획, 1996.

소가 신규 관광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며, 1997년에 석대도·간월지구·남당지구 3개소를 신규 관광지구로 추가해 총 13개소의 관광지구를 계획하고 있다.〈표 9〉

(4)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변경 계획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변경계획」(1992년, 1998년)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민

족문화 기반의 확대와 백제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백제문화의 관광자원화, 공주·부여 일원의 장기전략 필요 등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들 계획의 내용은 문화유적 발굴, 보호·정비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권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적 발굴, 보호·정비사업은 공주, 부여,

〈표 9〉 태안해안권 관광지구 개발계획

구분	지 구 명	부지면적(㎡)	개 발 유 형	사업비(백만원)	소재지
	합 계	9,628	16개지구	1,848,695	-
	소 계	8,315	13개지구	1,787,095	-
기 존 계 획 (92 년 ~ 96 년)	삼 교 호	0.199	수 변 관 광 형	14,384	당진군
	무창포해수욕장	0.310	해 안 위 락 형	84,175	보령시
	기존관광 대천해수욕장	2,150	해 안 위 락 형	744,580	보령시
	지구정비 안 면 도	4,693	위락 및 휴양형	600,000	태안군
	보완계획 덕 산 온 천	0.723	관광 및 휴양형	304,376	예산군
	죽 도	0.062	위락 및 휴양형	5,080	보령시
	금 강 하 구 독	0.178	호 반 관 광 형	34,500	서천군
	소 계	1,313	3개지구	61,600	-
	신규관광 원 산 도	0.548	위락 및 휴양형	19,600	보령시
	지 구 난 지 도	0.140	위락 및 휴양형	12,600	당진군
추 가 개 발 계 획	개발계획 춘 장 대	0.625	해 안 위 락 형	29,400	서천군
	소 계	0.412	3개지구	61,278	-
	신규관광 석 대 도	0.075	위락 및 휴양형	15,077	보령시
	지 구 간 월 지 구	0.171	위락 및 휴양형	10,677	서산시
	개발계획 남 당 지 구	0.166	위락 및 휴양형	35,524	홍성군

자료 : 충청남도,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계획, 1996.

익산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정비사업을 확대하며, 유물 보존,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관광개발계획은 공주와 부여를 축으로 금강변을 따라 백제대로를 건설하고, 주변에 관광농원, 노인휴양촌, 기업연수촌, 오토캠핑촌 등의 체험휴양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백제시대의 다양한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풍속종교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장제묘지촌 등 7개 기능과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권 개발지역은 공주 부여지역의 도시기반 시설과 풍물거리조성, 화물 및 여객터미널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공주, 부여지역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시도하여 왔으나 개발을 마무리 짓는 2001년을 앞두고 추진실적과 사업비의 현실성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기본계획을 계획구역, 사업비, 사업기간 등으로 수정 보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¹⁸⁾

4)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유형별 지역분포 분석

문화관광자원의 분포유형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GIS ARCVIE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로 집중도에 따라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역사문화자원 유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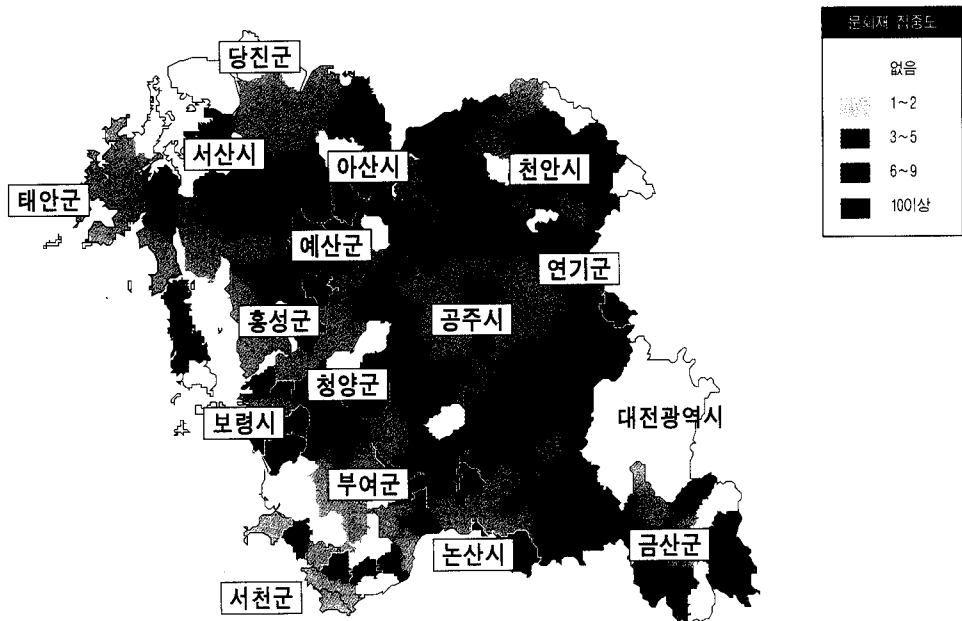
서 문화재 유형에서는 유형문화재의 경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홍성군 등, 무형문화재는 서천군, 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등, 기념물로는 부여군, 논산시, 천안시, 예산군, 공주시 등, 민속자료는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등에서 높은 집중도와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여군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고르게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공주시가 역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이, 논산시에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예산군에는 무형문화재, 민속자료가 높은 집중도와 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 참조).¹⁹⁾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태와 관련한 방문장소별 분석에서 고고학적 유적은 부여군,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논산시 등, 사찰관람은 공주시, 천안시, 부여군, 예산군 등, 사적 및 명승지 방문은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서산시, 금산군 등, 전승지, 성곽 성터, 도요지 방문은 부여군, 공주시, 서천군, 논산시, 천안시 등, 박물관 방문은 공주시, 부여군 등, 민속마을 및 생가지 방문은 예산군,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 등, 성지 성역, 묘지, 제실방문은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서산시 등, 기념물 방문은 태안군, 풍속 풍습 행사참여, 비법전수등은 서천군, 부여군, 공주시, 홍성군 등이 높은 집

18) 충청남도 전라북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 변경계획, 1999.

19) 이인배 여정대, 충남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유형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27호, 한국관광학회, 1998.



자료 : 이인배 · 여정태, 충남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유형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27호, 한국관광학회, 1998.

[그림 4] 문화관광자원의 시·군지역별 집중도 분석

중도와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의 관광행태와 관련한 지역별 유형화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석자료이다.²⁰⁾

5)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문화자원을 잘 보존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나아가

서는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전국의 백제, 신라, 가야, 중원, 영산강 등 5대 문화권 중 충남은 백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문화관광자원의 개발실태와 이용자 성향, 문화관광자원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0)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1999.

(1) 문화관광거점 기능과 관광기간 연계성 부족

충남은 공주 부여, 보령, 아산 등의 관광도시가 있으나 거점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숙박·음식·위락·쇼핑·편의시설 등의 관광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없다면 ‘그림속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인 공주와 부여의 경우는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1999년)에서도 충남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광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관광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역사문화·온천·해안자원 등이 주요 관광자원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개념으로 하여 소재를 이루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부족하고, 이를 관광기간 연계하는 테마와 관광루트의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품개발 미흡

역사적 유물·유적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역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커다란 뜻이 있기에 산 교육장이 되고 관광자원화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관광자원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등을 주제화하거나 교육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

광객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의 경우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등에도 비교적 많은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별로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의 방문여부와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관광테마’를 선정하여 주제별 관광코스와 여행사의 관광패키지 상품화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충남 문화재의 관광상품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토문화제와 축제의 프로그램 부족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적의 특성이나 접근의 연계성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패키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루트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재 관람에 그치는 단순관광에서 체험적인 문화교육 관광으로 관광패턴을 전환시켜 체재형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충남의 향토문화제와 축제, 민속놀이의 경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최근 주민통합축제와 산업축제가 주류를 차지하며, 개최시기도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시즌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 필요

충남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 토속음식은 다종다양하나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도 있다. 따라서 이들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보다는 지역특산물, 농수산특산물, 토속음식 등은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그 상품의 특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남지역 기념품과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형태, 생산물의 특성에 따른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표준화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건에 맞는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충남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과 특산물 중에는 민속주, 과일, 버섯, 젓갈류, 토속음식 등 다양한 제품이 단체관광객에게 선호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개발한 것이 출발단계에 있으므로 특히, 단체관광객을 위하여 여행사와 연계한 상품판매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형식적인 문화관광코스의 선정으로 실천성 부족

적합한 문화관광코스의 개발은 관광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된다. 따라서 지역의 교통여건과 관광자원의 유형, 특성에 따라 상호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충남의 경우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일정과 시간을 고려한 관광코스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코스에서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을 이동이 가능한 시간과 계산하여 연계하고 있을 뿐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의미를 관광객의 행태와 연계하여 고려치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자원의 경우는 방문객의 방문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테마를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코스와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6) 문화관광활동 관광수요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미흡

충남의 시·군 지역별 관광객의 여행목적에서 부여 천안 공주 예산 등은 주요 관광목적이 문화관광활동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이 시·군을 방문하는 선택요인으로 작용한 지역도 부여 공주 천안 아산 금산 예산 홍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충남의 거점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 바로 이들 지역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문화관광활동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서,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은 아직까지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미흡하고, 제반 관광여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7) 집행이 부진했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계획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계획내용은 그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권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현재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이제 출발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계획들은 그 동안 미흡했던 문화자원의 물리적 시설 공간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그나마 추진되고는 있으나, 문화자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볼 때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역사문화자원의 재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많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많은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8) 지역의 분포특성을 살리지 못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특성과 주변의 제반여건에 따라서 그 가치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충남의 경우는 문화자원의 유형에서 지역별로 그 집중도와 분포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하는 단체관광객이 다소 방문하는 편이었으나 관람형의 단순한 관광패턴과 지역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문화관광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문화재 유형별로 지역별 분포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고고학적 유적, 사찰, 사적 및 명승지, 전승지, 성곽 성터 도요지, 민속마을과 생가지, 성지 성역 묘지, 기념물, 풍습 행사 참여, 비법전수 등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도 지역적 분포에 따른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으로 공주 부여 익산을 행정구역의 계획범위로 하고 다른 지역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21세기를 향한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전략

1) 충남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기본방향

충남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문화의 육성
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일석삼조
(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
자원을 단순히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역문화자원의 개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충남
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
탕으로 한 충남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거점지역을 집
중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자원이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관광기능을 강화하
여 지역이미지를 구축한다.

둘째, 지역 고유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발굴
육성한다. 충남지역의 각 시·군 지역에는 고유
한 전통문화의 특성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자
원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역문화로 집
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한다.

셋째,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성별로 테마를 선
정하여 관광상품화 한다. 그러므로 문화자원의
집중도와 주변의 연계 자원을 고려한 '테마형 관
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교육기관, 여행사, 숙박시
설 등에 제공한다.

넷째,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체험과 교육형 문

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단
위 관광객과 학교단체 수학여행, 일본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다.

다섯째, 지역축제와 지역 특산물을 관광상품으
로 개발한다. 지역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
고, 지역특산물은 관광을 하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여섯째,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주민이 주
체가 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는 직접 지역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야 한다.

2) 21세기를 향한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전략

앞에서 제시된 충남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나아가야 할 충남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전략
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거점 지역으로 공주 부여의 집중 육성
;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성공개발과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개발계획의 추진

충남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구심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거점 관광지를 개발,
지역의 문화관광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의 체계화
와 다른 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측면의 지역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충남지역 문화관광의 주요 거점지역은 공주 부여권의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공주 부여는 백제문화권역의 중심지역으로 금강을 축으로 백제역사문화자원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관광도시로 개발한다. 호남고속철도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결로 타권역과 연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논산을 부거점으로 하여 기능을 지원토록 한다.

주변지역과의 연계는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과 하고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충남 전지역의 중심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환황해권의 문화관광자원 육성을 위하여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바다자원과 가야산 주변의 불교자원, 조선후기 명현(名賢)과 충절인의 특징이 있는 유교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내포문화권의 문화관광개발²¹⁾은 충남에서 백제문화권 개발과 더불어 또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의 전략적 육성

;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유하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충남지역의 각 시·군 지역에는 고유한 전통문화의 특성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한다.

문화관광자원은 산업기술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자원에서부터 축제와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화가 가능한 모든 지역문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인 방침이나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가치의 척도가 되는 우수한 문화자원의 연출과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출과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을 살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테마가 있는 지역 특화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 고도(古都)로서 역사체험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충남지역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성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자원의 집중도와 주변의 연계 자원을 고려한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교육기관, 여행사, 숙박시설 등에 제공한다.

특히, 백제역사문화유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물·유

21) 오석민,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9.

적지를 복원한다. 나아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보전 복원 재현하여 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충남전역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개발한다.

충남지역 대부분의 문화관광자원은 백제문화를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도 백제문화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관광성향으로 보아서 동적인 관광 행태의 수용과 함께 현대적 감각의 관광 분위기와 토속적 음식, 민속놀이, 노래 등이 함께 조화된 테마관광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선호도가 높고, 지역문화의 특성과 지방색이 가미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문화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가치적 자원으로는 문화재, 지역의 특산물, 토속 음식, 문화제 행사 등이 있다.

(4) 체험과 교육형의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 고도(古都)로서 역사체험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자원과 축제의 발굴 육성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체험과 교육형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학교단체 수학여행, 일본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다.

충남의 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은 체험과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되 문화관광자원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관광코스 설정하여 문화관광활동의 경험을 유도하도록 여행패키지를 상품화한다. 각 문화관광코스는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망과 지역내에 연계된 교통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이용코스를 구상한다.

특히, 문화관광코스별로 관광객의 이용목적, 동반형태, 이용교통수단, 여행일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충남

〈표 10〉 문화관광코스 개발유형

구분	여행일정	동반형태	이용목적	이용교통수단
문화관광코스 설정요소	① 당일형	① 개인	① 유물 유적 방문	① 승용차
	② 숙박형	② 단체(여행사)	② 박물관 관람	② 시내 일반버스
		③ 단체(친구, 직장)	③ 사찰 방문	③ 관광버스, 승합차
		④ 가족동반	④ 사적 명승지 방문	④ 기차
		⑤ 친구 친지	⑤ 성지 성역 방문	⑤ 배
		⑥ 기타	⑥ 풍속 행사 참여	⑥ 기타
			⑦ 기타 복합 참여	

지역의 문화관광코스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의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충남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시장의 유형에 따라 많은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표 10)

(5) 지역축제와 특산물의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 지역문화제의 국제화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충남의 지역축제와 민속놀이, 각종 이벤트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특산물은 관광하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현재 충남에는 공주 부여에서 격년 윤번으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금산 인삼제, 서천의 한산 모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등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향토의 자연, 역사 등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 고유의 민속행사, 시군별로 실시되고 있는 향토축제와 지방민속행사 등 지역문화행사는 지역이벤트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행사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연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마다 소주제별로 시기를 조정,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수기를 타개한다. 또한 이벤트의 내용은 지역별, 관광지별로 특성있게 구성하고, 규모는 국제적·전국적·지역적 행사로 구분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

특히, 2002년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지역문화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기반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산품, 농수산물 등의 전통공예품으로는 도자기 공예, 석공예, 목공예, 죽공예 등이 있고, 농수산물로 버섯, 약초, 대추, 복숭아, 사과, 젓갈류, 생선류, 건어물류 등이 있는데 이를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시·군별로 지역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홍보한다. 그리고 충남의 향토음식과 민속주는 그 지역의 고유한 생활풍속이 결합된 것으로 관광객의 기호에 맞도록 개선하여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특성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6) 주민과 행정, 민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
에 의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는 직접 지역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의 경우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과 행정, 민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삼각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문화의 육성과 함께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축제와 지역특산물의 경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이 있고,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거점지역의 개발과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있을 때 사업의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상품으로서 문화관광코스과 체험형 교육형의 프로그램 개발은 여행사와 숙박시설 등의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참여가 있을 때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5. 맺음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혹자는 말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기(New-Millennium)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21세기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와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환경 및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새문화관광정책’과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관광비전 21’ 등, 충남에서는 ‘충남장기발전비전 21’에

서 ‘21세기 정신문화 창조’와 ‘도전적 관광자원의 입체적 개발’ 등에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지역 문화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자원을 단순히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의 개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거점지역을 집중 육성, 고유한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성별 테마를 선정한 관광상품화,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체험과 교육형 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축제와 지역 특산물의 관광상품 개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21세기를 향한 충남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가능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고 문헌

- 김사현, 관광경제학 신론, 일신사, 1997.
- 김정옥, 관광자원관리론, 대왕사, 1997.
-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1999.
-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 세부추진계획, 1997.
- 손대현,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일신사, 1992.
- 안종윤 편저, 관광용어사전, 법문사, 1985.
- 오석민,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999.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 이인배 여정태, 충남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유형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27호, 한국관광학회, 1998.
- 전고필, 광주 전남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태환 외, 문화대국으로 가능길, 지식산업사, 1995.
- 충청남도, 공주 부여권 관광개발계획, 1996.
- _____, 문화재목록, 1998.
- _____,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계획, 1996.
- _____, 도정백서 : 1997.
- 충청남도 전라북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 변경계획, 1999.
-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7.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 _____, 전국민여행동태조사, 1998.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체육 관광의 연계방안, 1995.